

“세계여성의 날과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축제입니다.


올해로 112주년을 맞는
세계여성의 날,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날의 투쟁이 총파업으로 번져
1910년에는 '의류노동자연합'이 탄생하고
매년 2월 마지막 일요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10년 8월에 열린
제2차 국제여성사회주의자대회에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에 의해
세계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고,
1911년 3월 19일, 첫 번째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합니다.




A world map is shown in the background, with various countries highlighted in different colors: red, orange, yellow, and purple. A large purple rectangular box is overlaid on the map, containing white Korean text.

이후 각국에서
공휴일, 법정기념일 등의 형태로
여성의 날이 지정되었고,
1922년부터
매년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전투성이
발휘되는 여성의 날은
프롤레타리아(노동자) 여성의
의식과 조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노동계급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세계 여성의 날' 中





우리나라는 1920년대 중반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회 격변기에 명맥이 끊어졌다가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고,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 왔을까요?

UN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하기로 합니다.

勤勞女性大會 개최

노총에서는 「세계여성의 해」의 첫사업으로 18
일하오 2시 신문회관에서 「근로여성대회」를 개
최하고 『노조활동을 통한 근로여성의 경제적 사
회적 지위향상』을 선언하고 여성근로자의 정년
연령의 연장과 결혼퇴직의 강요, 임금및 노동조
건에 대한 남녀차별의 철폐등을 강력히 요구했
다.

한국노총은 1975년 3월 18일,
세계여성의 해 사업으로 ‘근로여성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가 한국노총에서 ‘여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한 첫 행사입니다.

大會宣言文

첫째, 우리여성들의 정년연령은 대개 40才가 고작이고 그나마도 결혼하면 강제퇴직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고

둘째, 임금수준이 남성의 절반 이하일뿐 아니라 노동시간에 있어서도 아직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며

셋째,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조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기숙사등 후생시설의 미비로 막심한 고통을 겪고있는 근로여성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은 남성들에게 의존할수도 없고 사용자들의 양심에 맡길수만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근로여성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 2백만 근로여성은 뜻깊은 「세계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자리에서 남녀의 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특히 노동조합활동의 참가를 통해 우리근로여성의 처우개선과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힘찬 전진을 계속할것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당시 대회에는 400여 명이 모여
정년차별, 결혼퇴직강요, 저임금장시간노동 철폐와
모성보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1975년 첫 대회 이후 10년 만인
1984년 5월 21일,
두 번째 근로여성대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근로여성의 조직확대.”

이 대회는 ‘여성 및 연소노동자(근로자) 보호
강조기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여성노동자의 권리, 지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전국여성노동자대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1984년 이후, 근로여성대회,
전국근로여성대회, 근로여성 및 연소자대회,
여성 및 연소노동자대회 등
여러 이름으로 대회가 개최되었고,

1989년 5월 30일, 처음으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주제로 열렸는지 살펴볼까요?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역대 슬로건

- 1984.05.21 근로여성의 조직확대
- 1985.05.20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
- 1986.05.21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1987.05.28 여성노동의 평등과 균등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 1988.05.30 노동조합 여성활동 과제와 방향
- 1989.05.30 여성노동자의 어제 오늘과 내일의 전망
- 1990.05.30 여성노동의 평등·발전과 모성평화
- 1991.05.29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모성평화
- 1992.05.21 여성노동의 동일가치·동일노동·동일임금 확보
- 1993.05.26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탁아시설 확충실현
- 1994.05.26 여성노동의 고용평등·고용안정·모성복지 실현
- 1995.10.31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균등발전·모성복지 실현
- 1996.10.11 고용안정·고용평등·모성보호
- 1997.10.11 모성보호·고용안정·조직확대
- 1998.10.21 고용안정, 조직확대, 고용평등

- 2000.03.08 조직확대와 평등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2003.03.08 평등의 시작, 여성할당제!
- 2004.03.08 일하는 여성! 정치의 주인으로!
- 2005.03.08 다함께 여는 평등의 새날!
- 2006.03.08 여성노동자, 절반의 역사! 미완의 역사!
- 2007.03.08 일상의 정치, 평등의 정치
- 2009.03.08 여(女)노(勞)여(女)락(樂)
- 2010.03.08 여성노동자여, 지역정치와 통(通)하라
- 2011.03.08 강한 노조에 여성이 있다
- 2012.03.08 일어나자! 참여하자! 여성이여!
- 2013.03.08 양쪽 날개로 나는 평등세상
- 2014.03.07 함께 키우는 평등세상
- 2015.03.07 기억하라! 여성노동자, 힘내라! 여성노동자
- 2016.03.08 여성노동자여 일어나라! 이제는 투쟁이다!
- 2017.03.08 100만 조합원 총투표로 정권교체! 적폐청산!
친노동자 정권 수립!
- 2018.03.08 여성이 희망이다 노동이 미래다
- 2019.03.08 성평등 노동존중의 약속

올해 한국노총 여성활동의 슬로건은

“성평등, 조직화의 시작”

성평등 2020

올해 한국노총은 조직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평등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노동조합의 과제입니다.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

곧 조직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제11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조직화

2020
조직화의 시작이되는
성평등한 노동조합을 이루기 위해

- ① 성인지적 관점 강화, 여성간부 역량강화
- ②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
- ③ 여성할당제 정착으로 여성대표성 강화
- ④ 노조 내 여성위원회 설치 및 강화

를 실천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의 역사와
한국노총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올 한 해 여성활동을 위해,
성평등한 노동운동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